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

김 성 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는 사회정의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은 사회정의와 인권의 실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 하겠다.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를 실천하는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중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신장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좌우되며, 사회복지사들의 수준 향상은 곧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 교육훈련, 그리고 사회행동과 조직화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개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인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본다면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바람의 제 1순위는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6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사·사회복지 근로자 기초실태 조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 2007)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시간은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55.14시간, 비교대제 근무자는 주당 53.47시간으로 나타나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임금수준은 월평균 143만원(평균 연봉 1,717만원)으로 도시노동자들의 임금(월평균 임금 222만원, 연봉 2,668만원)의 64.4%로 매우 낮다. 또한 평균근무기간은 4.6년으로 잦은 이

직률을 나타낸다.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수준과 과도한 근로시간은 결국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 향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의 가장 필수적인 과제이다.

II. 사회복지사들의 교육훈련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 방안은 현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다. 기초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9%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즉,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중 17.7%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24.7%가 지금까지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바라는 제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제공인 것은 위의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교육훈련이 사회복지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내용 제공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법제화가 시급하다. 그 밖에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혜택 및 관리감독 강화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이 사회복지계의 과제이다.

III.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Social Action) 강화

최근 IFSW(세계사회복지사협회)와 IASSW(세계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사회복지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자활력과 자유를 촉진시키는 학문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인간행동과 사회행동의 이론을 활용하여 국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현장에 개입하여 활동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원칙의 하나로써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Social Action)이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사회정의와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사회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여주는 사회행동의 효과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실시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현황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을 비교한 조사가 이를 입증한다(김성이, 사회행동입문, 2006).

한미간의 사회복지사 정치참여비교는 다섯가지 부분에서 실시되었다. ①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한 토론참여경험은 미국 사회복지사 98.4%, 한국 사회복지사 85.3%로 비슷하다. ② 집회나 시위참여는 미국 사회복지사가 24.7%, 한국 사회복지사는 40.9%로 한국 사회복지사가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③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관료들과의 접촉경험은 27.0%로 미국 사회복지사(6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④ 정치 후보자를 위한 선거캠프 참여 경험은 4.7%로 미국(13.5%)의 1/3 수준이다. 또한 ⑤ 정치 후보자를 위한 재정적 기부는 7.1%로 미국 사회복지사(35.6%)의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사회적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영향력 있는 사회행동 실천에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행동(Social Action)의 필요성을 인식해야한다. 적극적 접촉과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려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치참여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IV. 인권신장을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형성

인권신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 간의 네트워크가 국내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 사회복지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지방의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254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으로 당선되어 단일 직종으로는 최대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국제적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사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6년 10월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가한 APPLE Workshop을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단결과 연대를 다짐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의 단결과 연대활동은 더 이상 특정 이슈에 의한 선택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이다. 글로벌 시대 도래에 의한 국내외적 연대활동중요성을 사회복지사들은 인식해야 한다.

21세기는 특정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강요되지 않는 다원화 시대이자 조화와 균형을

통한 창조적 결과를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사회정의와 인권은 핵심가치이며 사회복지의 사회정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중요 분야이다.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자질 향상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 과제와 함께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행동에 사회복지사들은 총 단결해야 한다.

社會福祉士の權益伸長のための私たちの課題

金 聖 二(梨花女子大學校)

社會福祉は社會正義と人権が保障された社會福祉サービスを通して實現する。それゆえ、ある國における社會福祉サービスの水準は、社會正義と人権の實現の程度を図る尺度ともいえる。

社會福祉サービスの水準を決める最も重要な要因は、サービスを實踐する従事者たち、とりわけ社會福祉の最前線に立っている社會福祉士の人権伸張から出發する。社會福祉サービスの質はそれを行う社會福祉士によって左右され、社會福祉士の水準向上、つまりサービスの質的向上と対象者における暮らしの質の向上にまでつながるためである。ここでは、韓國における社會福祉士の勤勞條件や教育訓練、社會行動と組織化を中心に私たちの課題を考察してみる。

I. 社會福祉士の勤勞條件の改善

社會福祉サービスの質的水準を決める尺度である社會福祉士の勤勞條件はどうであろうか。最新の調査結果によると、韓國における社會福祉士の勤勞條件は非常に劣悪である。その理由で韓國社會福祉士協會の活動に對する社會福祉士の第一の希望は、處遇改善にある。

韓國社會福祉士協會が2006年に實施した社會福祉士・社會福祉勤勞者の基礎實態調査(韓國社會福祉士協會, 韓國社會福祉勤勞環境白書,2007)によると、社會福祉士の週当り勤勞時間は交代制勤勞者が55.14時間、比較代替勤勞者の場合は53.47時間で、法定勤勞時間の40時間を大きく上回っている。一方、社會福祉士の賃金水準は月平均143万ウォン(平均年俸1,717万ウォン)で、都市勤勞者の賃金(月平均賃金222万ウォン, 年俸 2,668万ウォン)の64.4%にすぎない。また平均勤勞期間は4.6年で、頻繁な離職率を示す。社會福祉士におけるこうした低い賃金水準と過度な勤勞時間は、頻繁な離職と直結し、これが持続性と専門性を基本的に必要とする社會福祉サービスの質的低下をもたらす。

したがって社会福祉士の賃金水準の向上や勤務時間の短縮などによる勤務条件の改善は、社会福祉士の権益向上はもとより、社会福祉サービス向上の不可欠な課題なのである。

II. 社会福祉士の教育訓練の強化

社会福祉サービスの質的水準を高めるための直接的方略は、現場の社会福祉士に対する持続的かつ体系的な教育訓練を通してである。基礎実態の調査結果、回答者の21.9%がそれまで一回も補修教育を受けたことがなかった。具体的に言えば、利用施設における社会福祉士の17.7%と生活施設における社会福祉士の24.7%が、それまで補修教育を受けたことがなかった。韓国社会福祉士協会への提言において二番目に高い割合を占めていたのが、自分啓発に必要な専門的な教育の提供であったことは上記の結果と関係している。このような事実は、従来の教育訓練が社会福祉士たちの質的水準の向上、専門性の強化のための多様な教育内容の提供に大いに足りないことを反証する。

したがって社会福祉士に対する補修教育の法制化が急務である。その他、教育訓練への参加に伴うメリットや管理監督の強化などのような政府の直接的支援とともに、多様な社会的現象に対処するための専門化された教育課程の開発と実行が必要であろう。

III. 社会福祉士の社会行動(Social Action)の強化

最近、IFSW(世界社会福祉士協会)とIASSW(世界社会福祉教育協議会)は、社会福祉についての定義として、“社会福祉は変化する社会の中で、人間関係における問題解決と暮らしの質の強化のため、国民の自活力と自由を促進させる学問である”と規定しながら“社会福祉士は人間行動と社会行動の理論を活用し、国民と環境の相互作用する現場に介入して活動する”と明示した。このような定義を実現するための実践原則の一つとして強調されるのが、社会福祉士の社会行動(Social Action)である。社会福祉士の勤務条件の改善と専門性の向上のための教育拡大のためだけでなく、国民一般の社会正義と人権伸張のためにも社会行動は必要である。

しかし、韓国の社会福祉士の示してきた社会行動の効果性は非常に低いこととわかる。2003年に実施された社会福祉士の政治参加の現況に対する韓国とアメリカにおける社会福祉士を比べた調査はこれを立証する(金性二, 社会行動入門, 2006)。

韓米における社会福祉士の政治参加の比較は五つの部分で実施された。①政治・社会的事件に対する討論への参加経験は、アメリカの社会福祉士が98.4%、韓国の社会福祉士が85.3%で似ている。②集会やデモ参加は、アメリカの社会福祉士が24.7%、韓国の社会福祉士は40.9%で、韓国の社会福祉士がもっと高い水準を示した。しかし、③業務と関連して政府官僚との接触経験は27.0%で、アメリカの社会福祉士(60.3%)の半分にも及ばず、④政治候補者のための選挙キャンプへの参加経験は4.7%で、アメリカ(13.5%)の1/3の水準であった。また、⑤政治候補者のための財政的寄付は7.1%で、アメリカ社会福祉士(35.6%)の1/5水準にとどまっている。結局、韓国の社会福祉士は政治・社会的問題には関心をもっているものの、影響力のある社会行動実践には不十分なのが見える。

社会福祉士は自分たちの権益向上だけでなく、国民の人権伸張のための社会行動(Social Action)の必要性を認識すべきである。積極的接触と行動を通して、自分たちの要求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し、社会福祉サービスの質的水準向上のための政治活動にもより活発に参加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IV. 人権伸張のための国内外的ネットワークの形成

人権を持続的に伸張するためには、社会福祉士たちの間のネットワークが国内外的に整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まず国内的には、社会福祉分野の連帯活動を強化するため、社会福祉士の地方議会参加を積極的に奨励するのが一つの方法であろう。例えば、韓国社会福祉士協会では、2006年の地方選挙で254人の社会福祉士が地方議会と団体長として当選され、単一職種としては最大となる成果をあげた。

国際的には社会福祉士と社会福祉サービスの質的向上のための世界各国の社会福祉士協会および社会福祉士との協力関係を構築すべきである。韓国社会福祉士協会は、2006年10月にソウルでアジア太平洋地域7ヶ国における社会福祉専門家たちの参加したAPPLE Workshopを開催し、アジア太平洋地域の社会福祉発展のための団結と連帯の訴える協約書を締結して国際連帯を強化した。社会福祉士たちの団結と連帯活動は、特定のイシューによる選択でなく、時代の求める課題である。このような、グローバル時代の到来による国内外における連帯活動の大切さを社会福祉士は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1世紀は特定のイデオロギーや思想が強要されない多元化時代であると同時に、調和と均衡を通じた創造的結果が要求される時代である。このような時代であるこそ社会正義と人権は最も重要な価値であり、社会福祉は社会正義と人権の実現のための重要な分野とし

て位置づけられる。したがって、社会福祉実現のためにはサービス提供の最前線に立つ社会福祉士の勤労条件の改善と資質の向上が最優先の課題であり、この課題とともに国民の社会福祉サービスの質を高めるための社会行動に向け、諸社会福祉士は団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